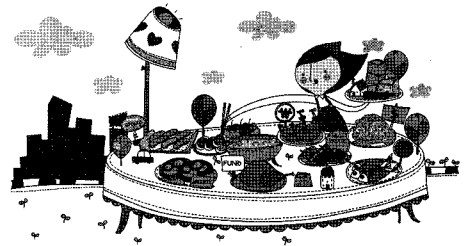


소비변화의 산업구조 영향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등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 변화가 앞으로 소비와 산업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황상필 소비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 인용한다.

65세 인구 2050년에 38%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을 정점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1980년경 4%에서 2010년경 11%, 2030년경 24%, 2050년경 3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의 소비 패턴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연령별 인구 구성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향후 소비 및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도 변화되고 있다. 전체 인구중 29세 이하 연령층의 비중이 1980년 65%에서 1990년 56%, 2008년 39%로 크게 낮아진 반면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은 1980년 12%에서 1990년 16%, 2008년

27%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주의 비중이 1990년 15%에서 2008년 38%로 높아진 반면 가구주 연령이 29세 이하인 가주의 비중은 1990년 16%에서 2008년 4%로 하락하였다.

전체 소비중 식료품 비중 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전체 소비 중 식료품 비중이 28.4%, 주거가 3.8%, 광열수도가 5.0%, 가구집기가사가 4.4%, 의류신발이 6.2%, 보건의료가 4.9%, 교육이 10.8%, 교양오락이 4.8%, 교통통신이 14.1%, 기타소비가 17.8%이다. 가계의 소비지출 추이를 보면, 전체 소비는 1980년-2008년 연평균 9.7%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교육, 교양오락, 교통, 통신 중 선택적 성격의 소비지출이 늘어났고 식료품 등 의식주 관련 필수적 소비지출은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보건의료, 교육, 가구집기가사 관련 지출이 증가하였다. 보건의료지출은

1980~90년대에 평균 이하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지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품목별 지출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교육, 교양오락 및 교통통신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14%에서 1990년 22%, 2008년 34%로 확대되었다. 반면 식료품, 주거, 의류신발 등 의식주 관련 소비 비중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더라도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그 비중이 증가한 반면 의식주 관련 소비지출 비중은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한 것이다.

보건의료 지출 40대 이후 높아져

이 결과 가구주 연령별 소비 행태의 차이도 거의 모든 품목에서 과거에 비해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교육 지출 비중은 40대를 정점으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낮아지고 있으나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 비중은 40대까지 낮아지다가 연령층이 높아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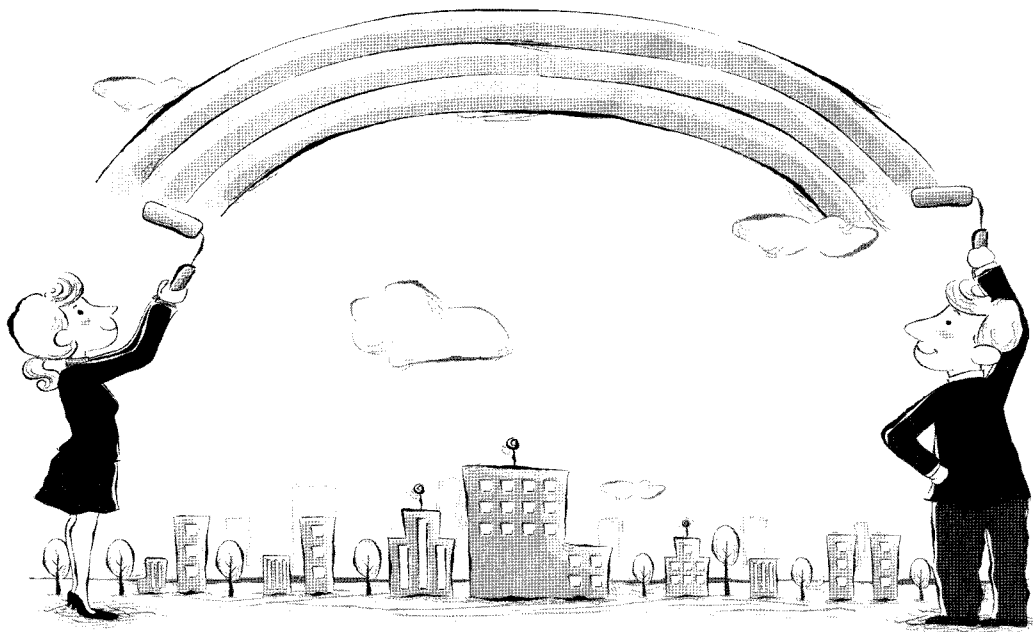
수록 크게 증가하는데 이러한 패턴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모두 대동소이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및 기타 소비는 50세 이상,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의류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은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대체로 비중이 감소하는 패턴이 모든 기간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 연령별로 품목별 소비지출합수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구조 변화를 전망한 후 인구구조 요인이 이러한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수량적으로 측정해 본 것이다.

교육 등은 사치재

교육, 교통통신, 기타소비 등은 실질소득이 높아질 때 지출비중도 높아져 사치재의 성격을 띠는 반면 식료품, 광열수도, 의류신발 등은 소득 증가와 함께 지출 비중이 하락하여 필수재의 성격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령 계층별로 60세 이상의 경우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교통통신의 비중이 식료품 다음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실질소득이 증가할 때 전체적으로 교육 지출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나 60세 이상의 경우 기타소비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타 연령층과 달리 광열수도 및 보건의료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집기가사는 30~39세 및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지출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교통통신은 소득탄력성 낮아

교양오락의 경우 40~49세 연령층에서 실질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지고 교통통신의 경우 49세까지는 소비지출 비중의 실질소득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나 그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통신의 경우 고령층일수록 소득탄력성이 낮은 것은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교통 지출 중 개인교

통 지출 비중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경우 50~59세 연령층을 정점으로 소득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식료품은 40~49세에서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기타소비의 경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실질소득이 증가할수록 여타 연령층에 비해 소비지출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가구원수의 계수 추정치는 식료품, 광열수도, 교육, 기타소비의 경우 플러스의 부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 방정식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2020년 시점에서의 경제 전체의 소비구조 변화를 전망한다. 소비구조 전망은 가주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성이 현재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10년간 1인당 명목소비지출 증가율, 가주주 연령별 가구 분포, 가구원수 변화 등에 대한 적절한 전제에 가능하다.



가계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3%대

먼저 가계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2020년경 3.5% 수준으로 낮아지고 2010~2020년간 증가율은 평균 3.8%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기간이나 신용카드 버블 이후 기간을 제외하고 가계 실질소비지출 및 실질 GDP 증가율에 차이가 거의 없는 데다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2010년~202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대 초반 ~4%대 초반 정도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2020년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때 소비자물가는 2010~2020년 중 평균 2.2% 정도 증가하게 된다. 인구증가율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1인당 명목 소비지출은 2010~2020년 중 평균 5.9%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1인당 명목소비 지출금액을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인 경우 전체 평균에 비해 높고 30~39세 연령층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낮은 편이나 최근 들어서는 가구주 연령층에 관계없이 비슷해지고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가구주 연령층에 관계없이, 그리고 모든 가구 구성원에 대해 1인당 명목소비지출 증가율은 같다고 가정하였다.

39세 이하 가구 비중은 감소

가구주 연령별 가구수는 통계청 가구주의 연령가 구 구성별 추계가구 통계를 이용하였다. 향후 전체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인 가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50세 이상, 특히 60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구조의 변화를 전망해보면, 2020년에는

2008년과 비교하여 식료품, 광열수도 등의 소비지출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교육, 교통통신, 가구집기가사, 보건의료, 기타소비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의 경우 소비 지출 비중이 2008년 대비 약 6%p 하락하고 교육은 3~4%p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형태는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료품, 교육, 교통통신, 기타소비 등의 경우 가구주 연령별 소비 패턴의 차이가 미래에도 대체로 동일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여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료품, 광열수도, 보건의료, 기타소비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지출 변화에 영향

인구구조 요인의 기여도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인구구조 변화가 대부분의 품목에서 소비지출 비중 변화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 변화 요인의 기여 방향이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로 일치하는 품목과 서로 상반되는 품목이 각각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 방향이 같은 품목은 식료품, 가구집기가사, 교양오락, 교통통신 및 기타소비의 5개 품목이다.

이 중에서 교양오락 및 기타소비의 경우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지출 비중 상승에 50%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통신이나 가구집기가사의 경우도 20~30% 정도의 기여도를 보였다. 식료품의 경우에는 크지는 않지만 인구구조 요인이 소비지출 비중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보건의료 지출 비중에 플러스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 변화 요인이 서로 상반되게 기여하는 품목 중에서 주거와 보건의료는 기타요인이 지출 비중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지출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보건의료의 경우 특히 두드러진다.

광열수도나 의류신발은 소득요인이 지출 비중을 낮추지만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지출 비중 하락폭이 둔화된 경우이다. 교육의 경우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출 비중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소득요인의 영향이 매우 커 결과적으로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변동폭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구조 변화는 보건의료 지출 비중을 1%p 정도 높이고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을 3%p 정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로 보건의료 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교육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OECD 선진국에 대한 전망 결과와도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소비구조와 산업구조가 정확하게 조응되는 경우는 드물다. 민간소비는 전체 수요 중 하나의 구성요소이므로 소비에 의해 창출되는 생산유발액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일부분에 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경우 품목별 소비구조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산업구조가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소비변화와 산업생산변화 상관관계 높아

그러나, 과거 자료를 통해 살펴볼 때 품목별 소비 변화와 산업생산 변화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최종 소비 비중이 높은 식료품과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

통신 등 서비스 부문의 경우 양자간 상관관계가 높은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소비지출이 변화할 때 생산유발 효과를 통해 산업생산도 업종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시산한 생산유발액 및 취업유발규모의 변화를 통해 소비구조 변화, 특히 인구구조 변화 요인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한다.

소비구조 변화 전망에 의하면, 실질소비(2인 이상 전국가구 기준)는 2008~2020년 중 연평균 약 3.1% 증가하여 2008년 약 309조원(2005년 기준)에서 2020년에는 약 450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교육, 가구집기가사, 보건의료 등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교육, 보건의료 증 실질소비가 증가

기타서비스, 석유화학, 식료품, 교통통신, 교육 등을 중심으로 2020년에는 약 690조원(실질)의 생산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가계소비지출에 의한 생산유발액 중 제조업 비중은 2008년 36%에서 2020년 34%로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은 53%에서 5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농림수산물, 도소매, 음식 및 숙박, 교육, 기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약 790만 명의 취업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취업유발 인원 중 농림수산업 및 제조업 비중이 각각 15%에서 12%, 11%에서 10%로 낮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은 73%에서 77%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2008~2020년간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요인 중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비지출 총액이 2008년과 동일한 경우 2020년 현재 소비지출 구조 변화에 의해 생산유발액은 약 6조원, 취업유발 인원은 11만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 증가, 취업 감소

생산 측면에서 2008년 생산유발액에 비하여 2020년에는 기타서비스, 교육 등 서비스 부문이 증가하나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등 식료품 관련산업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구구조 변화는 기타서비스, 보건의료 등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없는 경우에 비해 생산유발액을 2조원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료품 관련산업에서는 가구주 연령별 구성변화 요인과 가구원수 변화 요인이 반대로 작용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의 경우에는 두 요인이 모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감소폭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생산유발액 산정에 있어,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품, 석유석탄화학, 전기전자기계, 수송장비, 기타제조업, 전력가스수도건설, 도소매, 음식및 숙박,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서비스, 광업 등으로 분류된다. 취업유발인원도 전체적으로 기타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등 서비스부문에서 증가하겠으나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등 식료품 관련

산업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측면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타서비스, 보건의료 등 서비스부문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투입계수도 변화시켜

다만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과는 달리 고용측면에서 축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인구요인이 생산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석유석탄화학, 전기전자기계 등의 취업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교육의 고용유발 감소폭이 생산유발 감소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도 수요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투입계수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기술변화 등으로 인한 투입계수의 변화는 앞서의 전망 결과에 비해 생산은 더욱 확대시키고 고용은 더 한층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